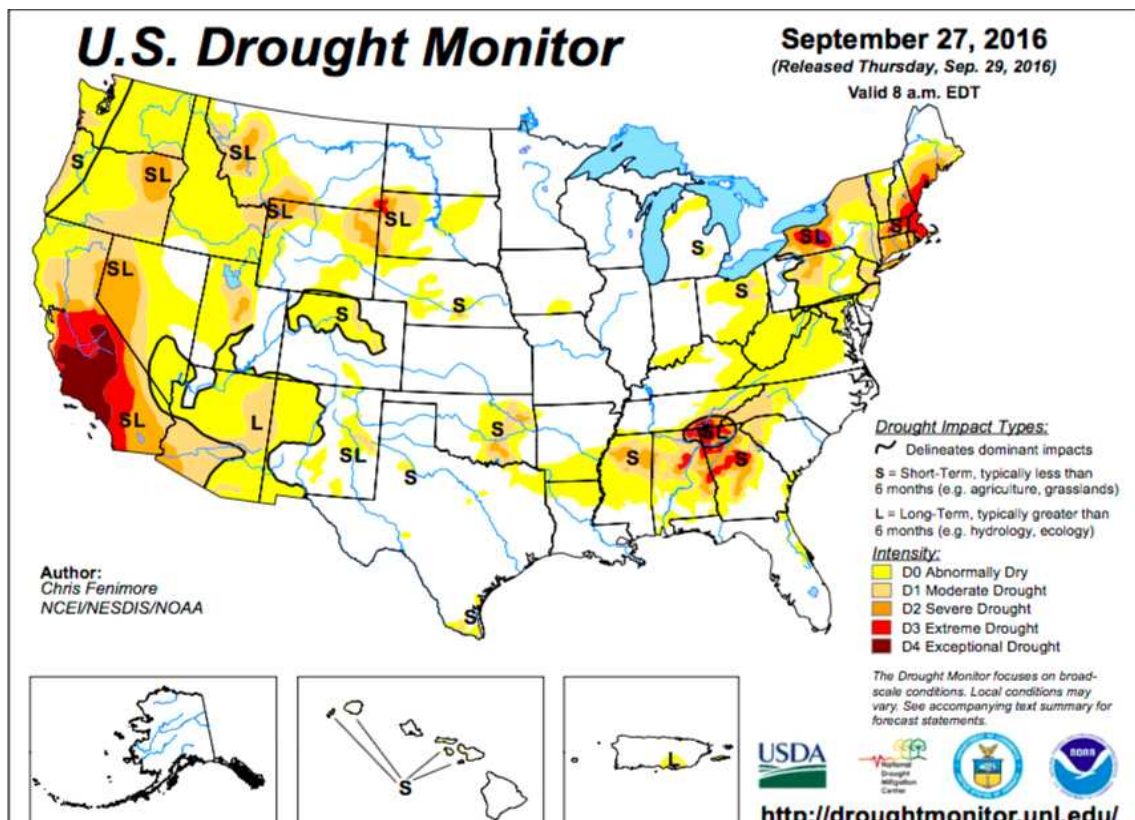


10월 4일 USDA 기후작황보고서(Volume 103, No. 40)

□ 미국 기후 현황(9/25~10/1)

대서양 연안 중부 일대에서는 많은 비가 내렸지만, 이들 지역에서는 오랫동안 가뭄이 이어져 온 탓에 침수로 인한 피해가 많이 발생하지는 않았다. 오하이오 및 오대호 인근에서는 호린 가운데 비가 몇 차례 내리면서 옥수수과 대두의 수확작업 및 겨울밀의 파종작업이 다소 지연되었다. 중서부 북부 지역에서는 맑은 날씨를 보이기는 했지만, 농지 곳곳이 침수되어 있어 농작업이 지연되었다. 미네소타와 사우스, 노스 다코타에서는 지난 한 주간 대두 재배지의 1/4이 넘는 지역에서 수확작업이 끝이 났다. 대평원 일대에서는 대체적으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는 가운데 겨울밀 파종작업 등 농작업이 차질 없이 진행되었다. 북부 평원 일대에서는 따뜻한 날씨로 밀이 발아하기 시작했다. 남동부 내륙지역에서도 맑은 날씨를 보였고, 수확작업이 박차를 가하기 시작했다. 남동부 일부 지역에서는 지난 한 주간 기온이 평년에 비해 5°F 정도 높은 날이 이어졌고, 앨라배마 북부와 중부 및 미시시피 주에서는 낮 동안 기온이 95°F가 넘는 더운 날이 이어졌다. 태평양 연안 지역에서부터 로키산맥 북부에 이르는 지역에서는 늦더위가 이어진 가운데, 몬태나에서는 지난 한 주간 평균기온이 평년에 비해 10°F 이상 높은 날이 계속되었다.



□ 농업 현황 요약(9/26~10/2)

오대호에서부터 대서양 연안 중부에 이르는 지역에서는 평년보다 많은 비가 내렸다. 델라웨어, 메릴랜드, 노스 캐롤라이나, 버지니아 및 웨스트 버지니아에서는 강우량이 평년에 비해 8배나 높았다. 그 밖의 지역에서는 2인치 미만의 비가 내렸다. 대부분의 지역에서 기온이 평년에 비해 높았으며, 주요 옥수수 재배지역과 남동부에서는 기온이 평년에 비해 최소 4°F 이상 높았다. 태평양 연안 북서부 일대와 남서부에서는 기온이 평년에 비해 낮거나 평년 수준을 유지했다.

■ 옥수수

10월 2일 기준, 전국적으로 황숙기가 시작된 지역의 비율은 86%이며, 이는 지난 해 같은 기간에 비해 4%p 앞서고 직전 5년 평균에 비해서도 7%p 앞서는 수치이다. 10월 2일 기준 전국 수확률은 24%이며, 이는 지난 해 같은 기간과 비교했을 때는 비슷한 수치이고 직전 5년 평균과 비교했을 때에는 3% 낮은 수치이다. 중부와 서부 일대에서 대체적으로 맑은 날씨가 이어진 덕분에 수확작업이 활발하게 이루어졌고, 특히 일리노이와 캔사스에서는 지난 한 주간 수확률이 각각 19%p, 18%p씩 증가했다. 전체 응답자의 73%가 생육상황이 좋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지난주보다 약간 낮은 수치이고,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했을 때에는 5%p 높은 수준이다.

■ 대두

지난 10월 2일 기준, 이파리가 떨어지기 시작한 지역의 비율은 83%으로, 이는 지난 해 같은 기간과 비교했을 때는 약간 앞서고 직전 5년 평균과 비교했을 때에도 5%p 높은 수치이다. 같은 기간 전국 수확률은 26%였으며, 이는 지난 해 같은 기간에 비해서는 10%p 낮고, 직전 5년 평균과 비교했을 때에는 약간 낮은 수치이다. 미시시피강 서부 일대에서 맑은 날씨가 이어지면서 수확작업이 활발하게 이루어져 전국 수확률이 16%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74%가 생육상황이 좋다고 응답했으며, 이는 지난주와 비교했을 때 약간 높은 수치이며,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했을 때에도 10%p 높은 수준이다.

■ 겨울밀

10월 2일 기준, 전국 파종률은 47%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지난 해 같은 기간과 비교했을 때는 약간 낮은 수치이고, 직전 5년 평균과 비교했을 때에도 2%p 낮은 수치이다. 15개 주 가운데 11개 주에서 직전 5년 평균에 비해 늦거나 비슷한 양상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적으로 파종된 지역 가운데 발아가 시작된 지역의 비율은 20%이며, 이는 지난 해 같은 기간과 비교했을 때는 4%p 앞서고 직전 5년 평균과 비교했을 때에도 3%p 앞서는 수치이다. 몬태나에서는 지난주에 비해 발아율이 32%p 증가했고, 콜로라도에서도 20%p 증가했다.

■ 면화

10월 2일 기준, 전국적으로 면화송이가 떨어진 지역의 비율은 71%로,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했을 때는 4%p 낮은 수치이고, 직전 5년 평균과 비교했을 때에도 3%p 낮은 수치이다. 현재까지의 수확률은 16%이며, 이는 지난 해 같은 기간에 비해 약간 앞서고 직전 5년 평균과 비교했을 때는 2%p 앞서는 수치이다. 조지아와 미시시피에서는 수확작업이 직전 5년 평균에 비해 앞서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전체 응답자의 49%가 생육상황이 좋다고 응답했으며, 이는 지난주와 비교했을 때에는 약간 상승한 수치이고,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했을 때에는 비슷한 수준이다.

■ 쌀

10월 2일 기준, 전체 수확률은 82%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지난 해 같은 기간에 비해서는 7%p 높고, 직전 5년 평균에 비해서도 13%p 높은 수치이다. 캘리포니아, 미시시피, 미주리에서는 지난 한 주간 수확률이 10%p 이상 증가했다.

□ 세계 기후 현황(9/25~10/1)

■ 유럽: 북부 일대에서는 주 초반에는 맑은 날씨를 보여 농작업이 활발하게 이루어졌지만 주 후반 갑작스럽게 소나기가 내리면서 농작업이 지연되었다. 잉글랜드, 프랑스 북부, 폴란드 등에서는 겨울작물 파종작업이 주 초반 계획대로 이루어졌다. 스페인에서는 맑은 날씨가 이어졌고, 발칸반도 일대에서도 맑은 날씨 덕분에 겨울밀 생육상황은 좋은 편이다. 남동부 일대에서는 지난 한 주간 기온이 평년에 비해 2°C 정도 낮았다.

■ 구소련(서부): 중부와 동부 일부 지역에서는 비가 내렸고, 이로 인해 농작업이 다소 지연되었다. 러시아에서는 동부에서 발달한 비구름이 중부와 서부를 지나면서 10~50mm 내외의 비를 뿌렸다. 우크라이나 북부와 서부에서는 비가 내리지 않았고 극심한 가뭄이 이어지고 있다.

■ 동아시아: 태풍 Megi가 대만을 가로지르면서 지나갔고, 이후 중국 남동부로 옮겨갔다. 이번 태풍의 최고 풍속은 115노트였으며, 대만에서는 이번 태풍으로 산사태가 나는 등 많은 피해가 발생했다. 남부 지역에서는 최고 550mm 내외의 비가 내렸고, 중국 해안의 Fujian, Zhejiang 일대에서도 350mm가 넘는 비가 내렸다. 대만에서는 이번 비로 수확을 앞둔 벼 재배지의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 메기는 이번 여름 대만을 지나간 태풍 가운데 산사태 등의 큰 피해를 입힌 3번째 태풍이다. 태풍의 영향으로 중국 동부 해안지역에서도 많은 비가 내렸다. 양쯔강 일대에서는 태풍으로 인한 비로 유채의 파종작업이 중단되었고, 북부 평원 일대에서도 겨울밀 파종작업에 차질이 생겼다. 일본과 한반도 남부 일대에서도 비로 인해 벼 수확작업이 중단되었다.

■ 호주: 밀 재배지 전역에서 비가 내렸다. 뉴 사우스 웨일즈 남부와 남호주, 빅토리아 등에서는 많은 비가 내려 침수피해가 발생하기도 했다. 강우량은 10~30mm 내외였으며,

지역에 따라서는 50mm 이상의 비가 내리기도 했다. 서호주 일대에서는 5~25mm 내외의 비교적 적은 양의 비가 내렸다. 이번 비는 밀과 보리, 캐놀라 등의 생육에 큰 도움을 준 것으로 보인다. 그 밖의 밀 재배지역인 뉴 사우스 웨일즈 북부와 퀸즐랜드 남부에서는 맑은 날씨 덕분에 농작업이 활발히 진행되었다. 밀 재배지 전역에서는 기온이 평년에 비해 1~2°C 정도 낮았고, 서부 일부 지역에서는 서리가 내리기도 했다.

■ 아르헨티나: 남서부 일대에서는 단비가 내렸다. La Pampa, Buenos Aires 서부 및 Cordoba 남부에서는 10~50mm 내외의 비가 내렸고, La Pampa 북부 일부 지역에서는 많은 양의 비가 집중되었다. 그 밖의 지역에서는 비가 거의 내리지 않았다. 서부 일대에서는 지난 한주간 기온이 평년수준을 유지하거나 평년에 비해 높았고, 동부에서는 기온이 평년에 비해 약간 낮은 날들이 이어졌다. La Pampa, Buenos Aires에서는 낮 동안 기온이 20°C 초반에 머물렀고, Chaco, Formosa 등에서는 낮 기온이 30°C 후반까지 치솟았다. 아르헨티나 농림부에 따르면, 9월 29일 기준 해바라기의 파종률은 35%인 것으로 나타났고,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4%p 높은 수치이다.

■ 브라질: 남부와 중부 일대에서는 대체적으로 맑은 날씨가 이어졌고 대두의 파종작업도 진행되었다. Rio Grande do Sul, Mato Grosso 중부 등에서는 비가 거의 내리지 않았다. Parana 주정부 보고서에 따르면 9월 26일 기준 밀의 수확률은 14%인 것으로 나타났고, 1기 옥수수의 파종률은 50%, 대두의 파종률은 14%인 것으로 나타났다. 맑은 날씨 덕분에 Sao Paulo, Minas Gerais에서의 사탕수수, 커피 수확작업도 차질 없이 진행되었다. 브라질 정부에서 발간하는 보고서에 의하면 Mato Grosso에서도 대두의 파종작업이 이루어졌다.